'86회원건축설계작품전 심사를 마치고

심 사 평

주거부문의 작품출품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김지태
'86회원건축설계작품심사위원장

올해도 우리회원들의 주옥같은 작품을 놓고 입선작품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창달을 위하고 나아가 시대적 건축사조를 창출하고자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출품 회원들께 경의가 표해진다.
출품된 작품수는 총46작품이며 주거부문이 7작품, 비주거 부문이 39작품이고 '85년도에 비하여 출품수는 줄어들었으나 실제 내용면에 있어서는 수준작 이상으로 평가되는 것들이 많았다.
건축물은 구조, 기능, 미를 갖추어야 하므로 이러한 조형물을 창출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출품된 작품을 통해서 본인은 시대적인 감상과 변천하는 시공 속에 공간구성의 연출솜씨와 표현의 기법이 괄목할만큼 발전향상되었고 또한 연구하고 연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0, 70, 80년대 후반에 접어든 오늘날 작품에서 받는 느낌은 성장하는 소년보듯 격세지감이 들었다는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심사위원들의 수고끝에 탄생된 입선작품 중에서 대상(大賞) 수상 작품과 우수상(優秀賞)수상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평가와 토론이 분분했는데 이는 단적으로 각 작품들이 그 우열을 가리기에 힘들 정도의 수작들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회원들의 작품은 완성된 건축의 실재(実在)를 놓고 평가하느니만치 작품내용과 건축적인 요소는 물론이려니와 그 시대의 건축사조(建築思潮)및 시사적인 성격도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경로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최우수작 〈성심여대 학생회관〉은 조형적인 외관구성과 무리없고 다양한 내부공간 처리로 이목을 끌었고 우수작인 〈반포 로우하우스〉는 앞으로 주택문제 해결 방안에 무엇인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특히 건축적인 요소와 독특한 주택외관 구성처리는 상당한 연구의 결과라고 보아진다.
입선 이외의 여러 작품들도 훌륭한 작품인 것만은 틀림없다. 다만 제한된 입상폭(入賞幅)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한 것뿐이다.
회원들은 협회 발전을 위한 작품전에 출품하는데 그 뜻을 두고있는 이상 이에 개의치 않으리라고 믿는다.
금번 심사를 끝내면서 우리회원들의 작품도 선진외국의 어떤 건축작품들과 견주어 볼 때 다소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손색없는 수준급 작품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흐뭇하기 이를데 없다.
아쉬움이 있었다면 작품성에 문제가 있어 그러한지 일반서민들의 공통 관심사인 주거부문의 작품이 예년에 비하여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 주거부문의 작품 출품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협회회원작품전을 빛나게 해준 출품한 회원들께 다시금 사의를 표한다.

지방작품의 참여가 아쉬워

박상호

'86회원건축설계작품전 심사위원

대상수상 작품은 아시안게임에 일역을 한 체육관으로서 건축물의 미적, 기능적 면과 현대적 건축자재에 의한 복합적인 구성으로 종합기획된 작품으로서 건축적인 기법면에서 전체적으로 매우 안정된 감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최우수상은 교육시설로서 학생들의 집회장의 다양성과 다기능, 다용도의 복합적인 내용을 잘 조화통일시킨 건축적 평면기획 기법의 우수성과 단일건재인 적벽돌로 많은 외형의 변화에 대한 입면적 구성의 특징을 잘 살린 점이 매우 좋았다.
전체적으로 주거용도의 작품수의 부족과 대구지방을 제외한 타지방 작품의 참여가 아쉬웠다.

작품성과 시사성에 관심

이문우

본협회 설계감리분과위원장

우선 본인이 '86년도 회원작품전을 위한 심사위원회 간사로 심사에 참여하였다는 것에 대해 여러회원님께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음을 말씀드려야 될 것같다.
'86년도 회원작품전은 어느덧 12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간 각시도 전국의 순회전시를 통하여 건축사의 창의성과 위업을 이 사회에 많이 알리게 되었으며 이로써 우리의 권익신장에도 이바지 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회원 작품 접수현황은 13개 시, 도중 6개 시, 도에서 각 분야별로 47개 작품만 제출되어 아쉬운 감이 많았으나 제출되지 않은 작품중에도 좋은 작품이 많이 있음을 우리 협회지를 보아서도 알 수 있으므로 차후에는 많은 회원이 참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작품 심사를 함으로써 우리 회원들이 하나의 건축물이 설계에서 시공을 통하여 완성되기 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생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작품에의 접근이 조심스러웠으며 그러한 신중한 접근을 시도하면서 건축사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찾아 보려고 노력하였다.
심사에는 우열을 가려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더욱 어려운 점은 동료건축사의 작품을 놓고 어떤 상을 주어야 할지를 정하는 일이었다.
특히 최종까지 경합을 벌인 2점의 작품 중에서 어느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가에 이르러서는 많은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투표에 의거,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심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었다.
대상 수상작품 선정의 경우 작품성과 시사성 등등에 심사위원들의 관심이 집중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수상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도 이 기회를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물은 그 시대의 거울이라는 것을 금번 회원작품 심사를 통하여 더욱 절감하게 되었으며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올수록 그 사회는 번영하게 되고 우리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도 보장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다.

수 상 소 감

대상(건설부장관상)

성균관대학교 체육관

번 용

(주)원도시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모든 집들은 각각 지은자와 설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 지어야 하는 필요도 있어야 집을 짓게되고 이용자에게 제공되어 집니다.
제공자(건축주)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전문가들과 협동하여 완성시켜 놓읍니다. 물론 집은 외형적인 완성보다는 생활이 풍족히 담겨 있을 즈음에야 집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바로 이때가 평가의 시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들은 그 시대의 여건을 잘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건축이 평가되는 것은 유독 누구 한사람의 역할로 인식되는것은 아니였으면 합니다. 같이 평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일반 이용자는 결과만으로만 평가하고, 전문가들은 여러 안목으로 평가할 수 있읍니다.
설계자는 이 두 개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상을 준다는 것과 탄다는 것은 조심스럽읍니다. 좀 특수하기 때문에 상을 탄다는 것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별하다고 해서 항상 좋은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특별한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기 때문에 상을 탄다는 것 보다는 가장 보편타당 하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통적인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통의 것들을 좋아하시기에 세상은 보통의 것들로 채워져 있읍니다.
이 성대 체육관도 시간이 흘러 우리 건축의 가장 보통의 수준의 집으로 남아 평가 되어지면 좋겠읍니다. 그때에도 평가되어져야만 상이 정말로 인정될 것입니다.
상을 타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우수상

성심여대 소피바라관

강석원

건축사사무소 그룹가

내가 만나는 건축주들은 첫마디가 「가장 경제적이고, 멋있으며, 튼튼한 건물」을 설계해달라는 분이 대부분이다. 누구나 이렇게 설계해 주길 바라며 나 자신도 이렇게 설계할 수 있기를 원한다.
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적당히 웃음으로 넘겨버리고 마는데, 퍽 어려운 주문이다. 어쩌면 불가능한 주문일 수도 있고, 모순되는 주문일 수도 있다.
학생회관 하면 간단히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정의된다. 도서관과 학생회관은 대학 캠퍼스의 핵으로서 하나는 연구의 장으로서 정적인 공간이며, 하나는 휴식의 장으로서 동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건축주를 만나보면 그리 간단치가 않다.

학생회관에 당연히 들어가는 편의시설 외에 일종의 기숙사인 피정의 집 — 가톨릭 계통의 대학이기 때문에 — 음악대학의 일부와 교수식당, 이 정도만 되어도 내가 갖고 있는 학생회관의 개념과 어우러져 상당히 복잡하기 마련이다.
건축주가 조직체일 경우 요구조건이 너무나 다양하여 서로 중복 모순되기 십상이고 협의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보통이다. 게다가 대지는 심한 경사지인데 요구조건을 많이 생략하더라도 동선 체계는 이미 상당히 복잡해져 있다. 다중인을 수용하는 건물치고 동선이 복잡하면 혼란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나름대로 하나 둘씩 기능을 집합·분산시켜 정리해 나갔다. 어느정도 동선체계가 정리된 후에는 과연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첫째 문제였다.
대학생만을 위한 이 공간은 이들이 꿈과 낭만, 하늘같은 포부까지도 수용해야 되며, 이들에게 신선하고 다채로운,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자면 단순한 박스형의 평면적인 구성보다 입체적인 형태구성이 더욱 어필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평면은 보편적인 공간구성의 원형인 직각보다 각을 많이 사용하여 정리했다. 필요한 곳은 서슴없이 예각을 사용했으며 상하좌우의 계단은 강한 수직선을 강조하기 위해 Open 시켰다.
동선의 연결도 평면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계산된 계단을 이용해 짜르고 연결해 나갔다.
층의 구성은 3개 층으로 구성하되 모두 옥외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하게 정리하여 경사지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나갔다. 층은 위로 올라갈수록 지형에 밀착시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배치시켜 나갔다.
결과적으로 건물은 수평·수직선이 강하게 교차하도록 되었고 내가 바라던 대로 입체적인 형태감과 퍽 다이나믹한 동적구성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인 소견이다.

끝으로 심사해주신 여러분과 시상을 마련해주신 협회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우수상(회장상)

반포 로우하우스

조성룡
우원종합건축사사무소

어릴적부터 시작하여 누구에게나 한번쯤은 상을 받은 경험이 있을것이다. 공부를 잘 하여서 우등상도 받을 수 있고 결석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면 개근상도 준다. 요즈음은 모르겠지만 정근상이란것도 있었다.
그리고 이 상을 받는 일은 누구에게나 기쁘고 신이 나는 일이다. 그래서 「다음에 또」하거나 「다음에는 더큰」식으로 욕심도 부려보게 된다. 상이라는 것이 이렇듯 우리를 즐겁게 하고, 더욱 밝은 미래를 위한 격려를 주기도 하는 반면에 또한 우리를 자만에 빠지게 하여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려 하는 유혹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므로, 더욱 나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경우도 흔한 일이다.
올해로 학교를 졸업한지 20년, 내년이면 사무실을 개설한지도 벌써 만 10년이 된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사고의 정립도 제대로이지 않고, 감정에 흔들림이 지나칠 정도이며, 이렇다하고 이루어 놓은것도 없이 지금에 이른다.
하룻밤에도 수없이 만들고 부수고 깨뜨리고 하던 이, 삼십대의 시간이 이미 지나고 이제 겨우 사람이 살아야할 환경쯤, 그리고 공간쯤 제대로 고민할 시간에 다달운것 같으나 아직껏 자신이 서지 않는다.
오늘의 상이 무척 기쁘기는 하지만 자칫 더 나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솔직히 감추기가 어렵다. 그러나 격려에 다시 한번 힘 입어 나약함을 극복해야 할 의무도 함께 느끼며 그동안 힘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이미 그들의 사무소를 개설한 원래의 멤버들을 포함하여) 사무소의 스탭들과 기쁨을 같이 하고 싶다.
선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고마움을 표합니다.

우수상(회장상)

아시안게임 선수촌

우남용
가나 건축사사무소

무한한 창작과 모방의 소산인 건축물은, 단순히 보고 느끼는 조형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숨쉬는 장소로써, 이에 대한 평가는 적어도 후일에야 가능하리라 믿어 왔지만, 뜻밖의 수상소식을 접하고 보니, 건축을 한다는 것이 사회실존문화 창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두려움마저 느끼게 된다.
짧은 시간들의 연속이었던 지난 작업들은, 좁고 길다란 언덕의 땅을 접하면서 시작되었고 그 방황의 종점은 둔덕 아래 기존 단지와 연계성을 갖는 주거공간 형성에 촛점을 맞춰, 지형과 도로의 굴곡에 따라 각개 평면의 정리에서 부터 외부공간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단독주거 형태를 하나의 공동주거 환경군으로 연결시켜, 자기 거주영역 확대라는 인식을 부여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일을 보낸 뒤의 일이다.
일반적인 공동주택형성 개념인 공동에서 개체공간 확보라는 사고로 부터, 개체공간의 연결이 곧 공동주택이라는 형태로 변해가는 과정의 또 다른 산물인 "반포 로-우 하우스"는 기존 "강남원 테라스 하우스"와 어느정도 주변환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소망을 그린 것이다.
좁고 긴 터널을 통과한 것같은 순간들을 보낸 지금, 이들이 있기까지 각고의 노력과 성원을 보내준 건축주, 시공자, 항시 격려를 아끼지 아니한 주변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고마움을 느끼며, 항시 사회의 각 공간을 마음을 비우고 담담히 메꾸어 나갈 수 있는 건축인으로 남기를 바란다.